

대학생의 아동기 집과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nd College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Environment for College Students

최병숙* · 이진숙 · 한영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 아동학과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Choi, Byung-sook · Lee, Jin-suk · Han · Young-sook

Dept. of Housing Environmental Design · Child Studies

& Institute of Human Ecology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Korean college students' place attachment to current home environments and their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 environments. The study sought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place attachment and college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environ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336 students at four universities in Jellabuk-Do, Korea, and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mputed and showed five factors related to place attachment of home environment. Place intimacy, rootedness, 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and place palyness showed in child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place identity, place affection, place restfulness, place dependence, and rootedness in college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explained 43.9% variance with regard to collegehood place attachment to home. This relationship implied that childhood place attachment strongly affected subsequent collegehood place attachment. .

Keywords: place attachment, home environment, childhood home, collegehood home, college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특정한 물리적 환경에 연결된 인간의 느낌 혹은 감정이다. 학자들은 장소애착을 “어떤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Jorgensen & Stedman, 2006; Low & Altman, 1992; Kelly & Hosking 에서 재인용, 2008). 장소애착은

1960년대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주거·건축·도시 관련분야에서는 1992년에야 비로소 Low와 Altman에 의해 이론적 틀이 정립되었다. 장소애착은 초창기 장소성(sense of place)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경험한 어느 특정 장소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성(affection), 소속감(belonging), 정체성(identity), 의존성(dependence), 착근성(rootedness), 사회관계(social bonding) 등의 여러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장소와 결합된 감정적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Kyle *et al.*, 2005; Low & Altman, 1992; Stedman, 2002; Stedman,

[†]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EDRA40 Conference 발표 및 한국아동학회지 30권 6호 발표 논문(아동기 자료) 그리고 Environment & Behavior (한국대학생 분석논문)의 심사 중 논문의 원자료를 토대로 통합 발전시킨 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 Choi, Byung-sook

Tel: 063-270-3840, Fax: 063-270-3632

E-mail: housecbs@jbnu.ac.kr

2006; Williams & Vaske, 2003). 장소애착에서의 장소는 곧 단순히 대상으로써의 물리적 환경의 머무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장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담겨지는 인간의 활동, 상징,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장소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이은숙, 2006; Relph, 1976). 다시 말하면 장소애착은 장소와 인간의 관계를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행태적 측면 등을 포괄하면서 여러 감정과 정서적 차원을 나타낸 개념이다.

장소애착의 연구는 주로 그 장소의 대상이 자연환경, 공적공간, 커뮤니티, 근린지구, 주택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장소애착을 측정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주거 측면에서 특히 집에 대한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약자인 노인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집의 개념을 장소애착으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Leith, 2006; Nygren *et al.*, 2007; Rubinstein & Parmelee, 1992). 그 외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으며, 그 장소의 대상은 주로 인간에게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인 주거환경이 중심이 되고 있다(이진숙 외, 2009; Chawla, 1992; Chow & Healey, 2008; Dallago *et al.*, 2009; Hess, 1997). 장소애착은 개인의 능력이 거의 없는 유아, 병자,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에게 장소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이은숙, 2006),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장소애착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애착 연구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고정하여 주로 연구한 것이고, 대부분이 서구사회 중심의 외국 연구들이다. 인간의 발달 단계상에서 장소애착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장소애착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부모 자녀 애착은 성인기 대인애착과 관련이 있다. 유아 및 아동기의 부모 자녀간 애착형성은 이후 발달 단계상의 대인 애착형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희경, 정계숙, 2010; 송지영, 박성연, 2010). 인간관계 애착을 넘어 물리적 환경과의 애착 관련을 다룬 Hess(1997)의 연구는 아동기 장소애착이 성인기 대인애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성인의 대인관계에서 아동기 장소의 중요성을 제시한 측면이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관점은 성인기 대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동기 부모 자녀의 애착 즉, 대인애착으로 한정되었으나, Hess(1997)

는 인간관계에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장소애착으로 확대하여 아동기이후 장소애착이 대인애착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장소애착이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다룬 것이고 대인애착과도 관련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아동기의 장소애착은 성인기 대인애착 뿐 아니라 장소애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는 거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기억에 근거한 회상적 방법을 통해 아동기의 어떠한 주거환경 요소가 마음속에 남아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은 아동기 기억의 연속선상에서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뿌리에 근거하여 현재의 삶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아동기 기억의 내재를 전제하고 현재의 주거환경을 디자인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 이를 반영하려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문은미, 2000; 최목화, 최병숙, 2003; Chawla, 1992; Marcus, 1992). 즉, 이런 작업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좋은 주거환경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물론 김원필(2002)은 실증적으로 아동기의 정서적 경험이 현 주거공간의 개인 영역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동기와 현재의 동일한 개념을 비교하기 보다는 아동기 정서적 측면이 현재의 공간적 영향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기억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주거의 개념이 성인기 주거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기와 성인기의 주거를 동일 개념으로 측정 비교함으로써, 발달과정을 통해 아동기 주거가 성인기 주거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를 입증하고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일차적인 장소, 집을 중심으로 정서적 관계 장소애착이 아동기와 성인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서로간의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간발달단계에서 유아, 아동의 부모자녀 애착은 성장 후 대인애착 및 관계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대인애착이론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장소애착이론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일차적 장소인 집을 중심으로 장

소애착이 인간발달단계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즉,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성인 초기인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아동기의 집에 대한 환경이 이후 발달단계의 성인기까지 어떤 영향성을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기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내용은 첫째,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검증한다. 셋째, 아동기와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요인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발달에 따라 장소애착 개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 간에는 관련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양상인지를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1. 집에 대한 장소애착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은 환경심리학, 관광학, 경영학, 건축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의 측정개념과 그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려는 기초연구가 있고(Jorgensen & Stedman, 2006; Kyle *et al.*, 2004; Kyle *et al.*, 2005; Williams & Roggenbuck, 1989), 응용적 차원에서는 인간이 어떤 장소에서 강한 장소애착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특정장소의 개발 및 상품화 방향 설정, 그리고 공간이나 장소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장소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측면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장소애착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인근을 개발하는 경우 주민들이 강한 장소애착을 갖는 경우 개발보다는 보전의 제안, 주거공간의 장소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조절, 공간의 본래 기능성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공간 디자인 등의 제안이 장소애착 개념을 응용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Harris *et al.*, 1996; Vorkinn & Riese,

2001).

앞의 서론에서 장소애착의 연구대상은 여러 곳이 그 대상이 되어 왔음을 제시하였지만, 특히 주거는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차적 장소로 흔히 ‘내 집’ ‘우리 동네’ 등의 표현으로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왔고, 주거는 장소애착이 뚜렷한 장소로 다루어지고 있다(최 열, 임하경, 2005; Chow & Healey, 2008). 주거 혹은 집(home environment)은 매일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곳이고 누구에게나 일생동안 삶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 Hayward는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로 제시하면서 인간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집은 가족, 친구가 포함되고 사랑과 소속감이 있는 친밀감이 있는 곳,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곳, 자기세계의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을 나타내는 곳, 사생활과 피난의 장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장소, 개인화된 장소,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면을 지원하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곳, 뿌리를 일컫는 유년기의 가정 즉, 사람이 성장하고 부모가 살고 있는 원초적인 곳, 그리고 물리적인 구조물의 의미를 갖는다(이경희 외에서 재인용, 1993). 친밀감의 집에 대한 의미는 앞서 언급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 중 정서성(affection)과 소속감(belonging)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 혹은 개인화된 장소로의 집의 의미는 장소애착의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집의 의미는 장소애착의 의존성(dependence)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부모가 살고 있는 원초적인 집의 의미는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인 착근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집의 의미는 커뮤니티까지 확장된 의미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인 사회관계(social bonding)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Kyle *et al.*, 2005; Low & Altman, 1992; Stedman, 2002; Stedman, 2006; Williams & Vaske, 2003). Harris 외(1996)는 집에 대한 애착 개념을 긍정적 평가(positive evaluations), 착근성(rootedness), 편안함(self-heaven), 소속과 연결감(connection), 일상행동 수행(activity), 개인화를 통한 정체성(identity)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세 가지 하위개념 즉, 가정의 경험(home experience), 착근성(rootedness) 그리고 정체성(identity)으로 요약하였다. 결국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집의 본질적 의미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하에서 정서성, 소속감, 착근성, 정체성, 의존성, 사회관계, 가정의 경험 등의 하위 개념으로 측정한다

통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에는 집에 대한 인간의 심리, 정서, 상징, 행태, 사회 등의 다양한 차원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은숙, 2006).

한편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장소애착 개념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루어왔다.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서는 장소애착, 특히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관심을 부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장소정체성이 관계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Low & Altman, 1992; Bonaiuto, *et al.*에서 재인용, 1999). 이와 같이 인간생활에서 본질적인 집의 의미 그리고 장소애착에서 집의 중요성을 볼 때 집에 대한 장소애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 발달 단계에 따른 장소애착

애착이론가 Bowlby는 관계를 나타내는 “애착행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특징짓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Molcar에서 재인용, 2006), 애착행동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린시절의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성인기의 부부관계 등으로 발달해 나가는 것처럼 애착행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애착관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장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장소애착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간 발달과정에서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일생동안 집을 옮기거나 여러 장소를 경험하면서 장소애착 역시 발전하게 된다(Molcar, 2006).

아동기의 장소애착은 안정된 집이 중요하고, 안전한 느낌(security)과 의식하지 않는 느낌(unselfconsciousness)으로 특징짓고 있다. 아동의 장소애착은 자연, 문화, 가족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아동기의 장소애착이 강하게 형성되면 성인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Derr, 2002; Hess, 1997; Molcar, 2006).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독립심이 증가하고 이동성이 커지면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나 다른 물리적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 정체감을 발전시키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집과 자신의 방을 가장 좋아하고, 집을 떠난 대학생의 경우는 장소애착의 결여로 자아정체감이 흔히 향수병으로 나타

난다. 심한 향수병을 갖는 학생은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 부족, 내적통제를 겪게 된다(Chawla, 1992; Molcar, 2006; Tognoli, 2003). 이처럼 청소년기는 장소애착의 변화기로 볼 수 있다. 성인기는 결혼을 하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 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보다는 장소애착이 강하게 발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여하고 활동이 증가하면서 장소애착이 지역사회까지 확장되는 시기이며, 자신만의 집을 만들어 나가는데 흥미를 느끼는 시기이다. 이때 아동기 집에 대한 기억이 토대가 되어 자신의 집을 디자인하고 장식하게 되므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Marcus, 1992; Molcar, 2006; Pretty *et al.*, 2003).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장소애착은 흔히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이후 노인의 자아정체감 즉, 자신의 존재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즉, 노인 자신의 인생 기억 속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및 집에서의 행동을 그대로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노년기 장소애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Molcar, 2006; Taylor, 2001).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설문지조사방법을 채택하였으면, 설문도구는 장소애착 측정과 응답자의 성별, 학년, 연령 및 주택유형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장소애착의 측정은 문헌고찰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장소애착이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다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장소애착을 측정할 선형연구(Harris *et al.*,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et al.*, 2004; Molcar, 2006; Stedman, 2002)를 근거로 가정의 경험, 착근성, 정서성, 정체성, 의존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장소애착의 측정항목 36개를 최종 선정하여 주거학과 아동학 전문가가 한글로 번안한 후 질문지로 작성하였다<표 1 참조>. 항목의 선정과정은 Harris *et al.*(1996)의 연구에서 home experience, rootedness, place identity 개념의 장소애착 측정항목 23개 중 만족설문을 제외한 22개 항목을 선정

하였고, Stedman(2002)의 연구에서는 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Kyle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affective attachment의 3개 개념의 11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Jorgensen과 Stedman(2006)의 연구에서는 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place attachment의 개념에서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Molcar(2006)의 연구에서도 10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나,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으므로 최종 36개 항목으로 정리

하였다. 한편, 측정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과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측정은 빈안한 것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아동기의 경우는 질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실 살았던 집을 중심으로 응답케 하였고, 아동기에 여러 번 이사경험이 있었

〈표 1〉 선행연구로부터 선정된 36개의 측정항목

선행연구로부터 장소애착 선정 항목	연구자*	선행연구개념**
• 우리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장소이다.	H	HE
• 나는 집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즐긴다.	H	HE
• 집에 들어설 때면 항상 집이 나를 반기는 느낌을 받는다.	H	HE
• 우리 가족은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끼도록 만든다.	H	HE
• 이사를 가면 나는 우리 집이 그리울 것이다.	H	RT
• 곧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H	RT
• 나는 우리 집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H, K	RT, AF
• 우리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K	AF
• 나는 우리 집과 동네에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K	AF
• 나는 우리 집과 동네에 정서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K	AF
• 우리 집 스타일은 나의 정체감을 나타낸다.	H	PI
•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낀다.	H, M, S, JS	PI
•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정말 집이 그리웠다.	M, S, JS	AF
• 집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M, S, JS	AF
• 우리 집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다.	M, S, JS	PD
• 우리 집은 내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곳이다.	M, S, JS	AF
• 우리 집은 ‘나’라는 사람을 나타낸다/나 자신을 나타낸다	M, S, JS	PI
•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집이 최상이며, 다른 어떤 곳도 우리 집과 비교할 수 없다.	H, M, S, JS	PD
•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표현한다.	M, S, JS	PI
• 내가 집에 관심을 가지면 갖는 만큼, 집은 머무르기에 더 좋은 곳이 된다.	M, S, JS	PD, AF
• 우리 집은 내 존재감의 중요한 일부이다.	M	PI
• 우리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긴다.	H	HE
• 우리 집은 내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껴진다.	H	HE
• 나는 집에서 매우 안정감을 느낀다.	H	HE
• 친구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우리 집이 좋다.	H	HE
• 우리 집은 모든 것을 잊고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H	HE
• 집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나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다.	H	HE
• 취미활동을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이다.	K	PD
•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다.	K	PD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집이외 다른 어느 곳도 생각할 수 없다.	K	PD
• 다른 어떤 곳 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좋다.	K	PD
• 우리 집의 장식은 나를 나타낸다.	H	PI
• 우리 집의 장식은 가족을 생각나게 한다.	H	PI
• 우리 집에 있는 물품들은 집안의 역사를 담고 있다.	H	PI
•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이다.	H	PI

* H: Harris *et al.*(1996), K: Kyle *et al.*(2004), M: Molcar(2006), S: Stedman(2002), JS: Jorgensen & Stedman(2006)

**HE: home experience, AF: affection, RT: Rootedness, PI: place identity, PD: place dependence

던 경우는 가장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집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설문항목 중 ‘취미활동을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이다’와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다’의 2개는 아동에게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였다’와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았다’로 바꾸어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장소애착 항목 중 아동기에는 자신의 정체감이 형성된 시기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정체감을 묻는 2개 항목으로 ‘우리 집 스타일은 나의 정체감을 나타낸다’와 ‘나는 집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제외하여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문헌고찰을 근거로 변안 개발한 장소애착 설문 문항의 이해 및 응답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개발한 설문지를 본조사용으로 확정하였다.

2008년 5월에서 6월 사이 전북지역 대학교의 아동학, 가족학, 주거학, 건축학 등 인간과 물리적 환경 관련 교과목 수업 대상 학생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담당교수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의 허락을 구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여 424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분석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장소애착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집과 그 주거 여건이 다르므로 분석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최종 336명을 대상으로 아동기와 대학생기의 장소애착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정준상관계수,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한국에서 장소애착 이론이 아직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 단계로 장소애착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

해서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장소애착 이론모형의 적합성이 재검증된다(송지준, 2009).

4.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35.7%(120명), 여학생 64.3%(216명)이었다. 1학년생이 28.0%(94명), 2학년 19.9%(67명), 3학년 32.4%(109명), 4학년 19.6%(66명)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나타났으며,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이 5.4%(18명), 20이상 22세 이하가 63.7%(214명), 23세 이상 25세 이하가 26.5%(89명), 25세 초과가 4.5%(15명)이었다. 전공의 분포를 파악하면 물리적 환경 관련 전공 응답자가 35.4%(119명), 물리적 환경 관련 비전공 응답자가 64.6%(217명)으로 파악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와 대학생기의 장소애착

아동기 및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부하값이 0.5이상인 항목을 추출하였다¹⁾.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집의 장소애착 개념은 5개 하위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²⁾ 장소애착의 5개요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5개 요인은 장소친밀성(요인1), 장소착근성(요인2), 장소정체성(요인3), 장소의존성(요인4), 놀이성(요인5)로 명명하였다.

아동기 요인1은 선행연구의 정서성과 집에 대한 경험의 내용으로 집이 갖는 본질 즉, 친밀의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소친밀성으로 명명하였다. 아동기 요인2는 선행연구의 장소착근성과 정서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1)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에서 36개 항목 중 공통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측정항목은 20개가 0.5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나타냈고,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측정항목은 23개가 0.5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나타냈다.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에서 적합도의 판정은 chi-square 값 이외 다른 지수로도 판단한다. RMR은 0.05이하인 경우 적합, RMSEA는 0.05-0.1인 경우 수용가능, TLI는 0.9이상이 적합, CFI는 0.9이상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RMSEA, TLI, CFI로 볼 때 장소애착의 5개요인 모델은 적합하다.

〈표 2〉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분석결과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
<p>요인1: 선행연구 AF+HE 개념-> 장소친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끼도록 만들었다.(.760) •나는 집에서 매우 안정감을 느꼈다(.734) •우리 집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었던 장소였다(.733) •집은 항상 나를 반겨주던 느낌이었다(.727) •우리 집은 머무르고 싶은 곳이었다(.654) •나는 집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했다(.565) •오랫동안 집을 떠났을 때 정말 집이 그리웠다(.557) 	<p>요인1: 선행연구 PI 개념-> 장소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집의 장식은 나를 나타낸다(.734) •우리 집은 ‘나’라는 사람을 나타낸다(.694) •우리 집의 장식은 가족을 생각나게 한다(.688) •우리 집에 있는 물품들은 집안의 역사를 담고 있다(.652) •우리집 스타일은 나의 정체감을 나타낸다(.603)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낀다(.599)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이다(.509)
<p>요인2: 선행연구 RT+AF개념-> 장소착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릴 적 살던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749) •나는 어릴 적 살던 집과 동네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742) •이사를 했다면 우리 집을 그리워했을 것이다(.731)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725) •이사를 해야만 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702) 	<p>요인2: 선행연구 AF 개념-> 장소애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683)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정말 집이 그리웠다(.644) •우리 집은 내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곳이다(.623) •다른 어떤 곳 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좋다(.532)
<p>요인3: 선행연구 PI 개념 -> 장소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집안의 역사를 갖는 것이었다(.770)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가족을 생각나게 했다(.762)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나를 나타냈다(.758) •어릴 적 집에서 했던 일들은 나의 한 부분이었다(.514) 	<p>요인3: 선행연구 HE 개념-> 장소휴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 들어설 때면 항상 집이 나를 반기는 느낌을 받는다(.743) •나는 집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즐긴다(.728) •우리 가족은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끼도록 만든다(.697) •우리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장소이다(.671)
<p>요인4: 선행연구 PD+PI개념-> 장소의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집이 최상이었으며, 다른 어떤 곳도 우리 집과 비교할 수 없다(.649)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꼈다(.648) •우리 집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다(.639)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표현했다(.589) 	<p>요인4: 선행연구 PD개념-> 장소의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다(.812)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집 이외 다른 어느 곳도 생각할 수 없다(.793)
<p>요인5: 선행연구 PD개념-> 장소놀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았다(.760)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였다(.706) •우리 집에서 놀이를 즐겼다(.705) 	<p>요인5: 선행연구 RT개념-> 장소착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우리 집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704) •우리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698) •이사를 가면 나는 우리 집이 그리울 것이다(.696)
<p>확인적 요인분석 $\chi^2(220, N=331)=674.982, p<.001$ RMR=.055, RMSEA=.079, TLI=.884, CFI=.899</p>	<p>확인적 요인분석 $\chi^2(160, N=336)=320.707, p<.001$ RMR=.046, RMSEA=.055, TLI=.938, CFI=.948</p>

아동기의 경우 장소착근성에서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의 항목은 선행연구의 정서성에 해당되는 항목이나, 대학생의 경우도 장소착근성으로 같게 유목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장소착근성으로 보면, 요인3의 항목은 장소착근성의 개념을 포괄한다고 판단되어 장소착근성으로 명명하였다. 아동기 요인3는 선행연구의 장소정체성의 항목들이 그대로 분류되어, 선행연구와 같이 장소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측정의 도구작성과정에서 아동기는 아직 자아에 대한 정체감의 형성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 질문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항목이 장소정체성으로 명확히 유목화되어 나타났

다. 아동기 요인4는 장소의존성의 개념에 장소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기 요인3에서 장소정체성의 개념이 명확하므로 아동기 요인4를 장소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아동기 요인5는 선행연구의 장소의존성의 개념에 해당하나 주로 아동기는 집에서의 놀이 활동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기 요인4를 장소놀이성으로 명명하였다. 장소놀이성은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하위개념과 비교하면, 아동기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나타난 개념이었다.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5개 요인은 장소정체성(요인1), 장소애정성(요인2), 장소휴식성(요인3),

장소의존성(요인4), 장소착근성(요인5)로 명명하였다³⁾. 대학생 요인1은 선행연구 개념을 기준으로 장소정체성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아동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에서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낀 정체감은 아동기와 달리 장소정체성으로 명확히 분류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아동기에 비해 발달하였고, 집을 통해서도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학생 요인2는 주로 선행연구의 정서성에 해당되는 행복, 그리움, 머무르고 싶은 곳, 좋은 곳의 의미를 담고 있고, 아동기 요인과 비교하면 장소친밀성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대학생 요인2는 장소친밀성의 소개념이며 집에 대한 정서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 장소애정성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 요인3은 집에 대한 경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대학생 요인3은 아동기 요인1 중 집의 본질적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나 아동기 요인1에 비하여 그 범위가 작고 환영, 쉬, 즐김, 보금자리의 의미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소휴식성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 요인4는 선행연구의 장소의존성 즉, 집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이 그대로 분류되었기에 장소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 요인5는 선행연구의 장소착근성 즉, 집에 대한 정서적 연결 및 그리움의 개념이므로 선행연구의 명명에 따라 장소착근성으로 하였다. ‘집은 나에게 큰 의미를 준다’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성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장소착근성으로 분류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으로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은 발달단계에 차이 없이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이었고, 아동기의 장소친밀성과 장소놀이성 그리고 대학생기의 장소애정성과 장소휴식성은 차이가 있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공통 요인인 장소의존성은 아동기와 대학생기의 측정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게 분류되었다. 아동기의 장소의존성 중에는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표현했다’와 같이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장소의존성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 시기에는 이러한 측정항목이 명확히 장소정체성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장소놀이성은 아동기 발달단계가 반영된 장소애착의 독특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놀이를 대학생 시기에는 측정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놀이 대신 대학생 상황을 고려 일과 취미활동으로 바꾸어 생각할 때 대학생 시기에

는 장소의존성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장소의존성은 놀이성이 별도 측정되고, 정체성은 아직 미발달단계임에 따라 다소 복합되게 측정항목이 구분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집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담은 아동기의 장소친밀성 요인은 대학생기의 장소애정성과 장소휴식성으로 나누어 분류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하위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아동기와 대학생기 집의 장소애착 요인 간의 관계

대학생의 아동기와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아동기와 대학생기의 각 측정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각각의 발달단계별 장소애착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대학생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서로 강한 상관이 있었다(Pearson's $r=.651, p<.001$).

그리고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각 5개 하위 요인과 현재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5개 하위요인과의 관련성도 파악하였다<표 3참조>.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각 하위요인은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 하위요인이 모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장소친밀성은 대학생기의 장소애정성과 장소휴식성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표 3>에서 파악되었고 이에 서로의 상관을 파악한 결과, 아동기 장소친밀성은 대학생기의 장소휴식성($.298, p<.001$)보다는 장소애정성($r=.436, p<.001$)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아동기 장소친밀성은 대학생기의 장소의존성과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r=.593, P<.001$). 아동기 장소착근성은 대학생기의 장소착근성과 상관은 있으나($r=.352, p<.001$), 대학생기의 장소의존성과 더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r=.509, p<.001$). 그리고 대학생의 장소휴식성과는 가장 약한 상관을 보였다($r=.141, P<.001$).

아동기 장소정체성은 대학생기의 장소정체성과 가장 강한 상관이 있었고($r=.609, p<.001$), 대학생의 장소의존성과도 강한 상관이 있었다($r=.500, p<.001$). 아동기 장소의존성은 대학생의 장소의존성($r=.545, p<.001$)과 장소정체성($r=.544, p<.001$)과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

3) 대학생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요인명명은 본 연구팀의 앞선 연구(Choi, Kim, & Lee, 2010 심사 중 논문)의 명명과는 달리 명명하였다. 정서성은 장소애정성으로 집에 대한 독특한 감정은 장소휴식성으로 본연구에서 명명하였다.

<표 3> 대학생의 아동기 집과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 상관관계

대학생기 아동기	장소정체성 (요인1)	장소에정성 (요인2)	장소휴식성 (요인3)	장소의존성 (요인4)	장소착근성 (요인5)
장소친밀성 (요인1)	.394**	.436**	.288**	.593**	.333**
장소착근성 (요인2)	.334**	.295**	.141**	.509**	.352**
장소정체성 (요인3)	.609**	.363**	.228**	.500**	.311**
장소의존성 (요인4)	.544**	.424**	.193**	.545**	.299**
장소놀이성 (요인5)	.321**	.369**	.196**	.954**	.181**

**P<.001

이는 <표 2>에서와 같이 아동기 장소의존성의 개념에 일부 대학생기 장소정체성의 개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아동기 장소놀이성은 대학생의 장소의존성과 가장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r=.954$, $p<.001$). 장소놀이성은 대학생의 모든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 결과 중 장소의존성과 가장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놀이성은 아동기의 특성상 장소의존성에 해당하나 아동기 상황에 맞추어 일부 항목을 측정 한 것이었으므로, 대학생기의 장소의존성과 관련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표 3>에서 볼 때 아동기 장소애착의 각 하위 요인들은 대학생의 각 하위요인들 중 장소휴식성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동기의 장소애착의 요인과 대학생기의 장소애착 요인이 동일하며 서로간의 상관이 높은 것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었다.

이는 앞서 <표 2>에서와 같이 아동기의 집에 대한 요인구조 및 측정항목과 대학생기의 장소애착의 요인구조 및 측정항목을 비교하였을 때,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요인과 유사한 측정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소착근성은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장소애착의 동일한 하위 요인이고 서로 상관은 있으나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요인에 비해 아동기와 대학생기 서로간의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기 장소친밀성은 대학생기 장소에정성, 장소휴식성

의 개념이 복합되었지만, 장소에정성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소에정성은 장소휴식성에 비해 아동기 장소애착 및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에 대한 친밀감의 의미가 대학생기 집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집의 본질적인 휴식기능의 의미는 대학생이 정서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기 장소놀이성은 장소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대학생기의 장소의존성과 관련이 높았고, 이 역시 동일요인의 개념으로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장소애착의 하위요인 중 명명한 바는 발달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아동기와 대학생기가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학생기 장소애착에 대한 아동기 장소애착의 관계 양상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대학생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 각각의 하위요인들은 상호 관련이 있었으므로, 대학생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에 대한 아동기 장소애착의 영향력 즉, 서로의 관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⁴⁾(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정준변량함수가 도출되었고, 그 중 정준상관계수 0.7이상인면서 유의한 첫 번째의 제1 정준함수를 선정하였다(canonical correlation=.958, Wilks'Λ

4)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은 두 개 이상의 기준변수(multiple criterion variable, 종속변수)와 두 개 이상의 설명변수(multiple predictor variable)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다변량분석기법이다"(이영준, 2002). 본 연구의 장소애착 변수가 하위 5개의

=.045, Chi-square=1228.352, df=25, P<.001). 따라서 정준상관분석 결과는 제1 정준함수에 따라 정리 제시하였다<표 4>.

아래 <표 5>에서 표준화정준상관계수와 정준부하치를 살펴보면, 아동기 장소애착에서는 장소놀이성 그리고 대학생기 장소애착에서는 장소의존성이 각각의 장소애착과

〈표 5〉 대학생기 장소애착과 아동기 장소애착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변 수	표준화 정준상관계수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s)	정준부하치 (canonical loadings)	정준교차부하치 (cross loadings)
대학생기 장소애착 변수군: 종속변수(set-1)			
-장소정체성	-.064	-.357	-.342
-장소애정성	-.053	-.387	-.371
-장소휴식성	.036	-.213	-.204
-장소의존성	-.969	-.996	-.955
-장소착근성	.004	-.203	-1.94
아동기 장소애착 변수군: 독립변수(set-2)			
-장소친밀성	.018	-.642	-.615
-장소착근성	.003	-.550	-.527
-장소정체성	-.071	-.565	-.541
-장소의존성	-.003	-.602	-.576
-장소놀이성	-.972	-.998	-.956
정준상관계수		.958	
정준상관계수 제곱		.918	
Wilks'Λ		.045	
Chi-square		1228.352	
d.f.		25	
P-value		.000	

하위변수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다변량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아동기 장소애착을 독립변수군(장소친밀성, 장소착근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놀이성)으로 하고, 대학생기 장소애착을 종속변수군(장소정체성, 장소애정성, 장소휴식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하위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다변인(multi-variate variable)이므로, 다변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 기법의 하나인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군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종속변수군의 하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각각의 하위 변인들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아동기 장소애착 하위변인 상관관계	장소친밀성	장소착근성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놀이성
장소친밀성	1.000	.636**	.569**	.700**	.631**
장소착근성	-	1.000	.556**	.602**	.534**
장소정체성	-	-	1.000	.659**	.509**
장소의존성	-	-	-	1.000	.585**
장소놀이성	-	-	-	-	1.000

**P<.01

대학생기 장소애착 하위변인 상관관계	장소정체성	장소애정성	장소휴식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
장소정체성	1.000	.627**	.455**	.296**	.522**
장소애정성	-	1.000	.527**	.335**	.548**
장소휴식성	-	-	1.000	.200**	.511**
장소의존성	-	-	-	1.000	.169**
장소착근성	-	-	-	-	1.000

**P<.01

관련이 높았다. 아동기 장소애착에서는 장소놀이성이 그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소친밀성,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기 장소애착에서는 장소의존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서 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소애정성, 장소정체성, 장소휴식성, 장소착근성의 순이었다. 다른 장소애착 변수군과의 교차하여 설명력을 본 정준교차부하치 역시 아동기 장소애착 에서는 장소놀이성이었고, 대학생기 장소애착에서는 장소의존성이었으며, 순위의 결과는 정준부하치와 동일하였다. 이런 결과는 아동기의 장소놀이성은 대학생기의 장소애착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다는 것이고, 대학생기의 장소의존성은 아동기의 장소애착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앞서 표2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장소의존성이 아동임을 고려 장소놀이성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생각하면, 장소놀이성, 장소의존성이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다음으로 장소친밀성, 장소애정성이며, 그 다음으로 장소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소착근성은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장소애착을 설명하는 중요도가 가장 낮았고, 특히 대학생기 장소애착에서는 그 기여도가 더 낮았다. 따라서 장소착근성은 장소애착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중요성인 낮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기 장소애착 변수군의 전체가 대학생기 장소애착 변수군 전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중복지수를 파악하였다<표 6>.

그 결과 선정된 첫 번째 함수를 보면, 대학생기 장소애착은 아동기 장소애착에 의해 43.9%의 설명력을 가지며, 아동기 장소애착은 대학생기 장소애착에 의해 24.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핵심 목표인 아동기 장소애착은 대학생기 장소애착

을 설명하는데 43.9%의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 물리적 환경관련 장소애착은 대학생기의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 매우 의미 것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대학생의 현재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하위 개념을 비교하고, 아동기와 대학생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아동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한 것이다.

우선 장소애착의 개념을 보면 아동기와 대학생 시기를 모두 공통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소애착은 장소의존성, 장소애정성,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의 개념이 결합된 다차원적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기 장소애착은 발달단계의 특징을 고려 장소놀이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초 아동기와 대학생 시기의 장소애정성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기의 장소친밀성은 장소애정성에 포함되므로 명확한 장소애착의 개념으로 발달단계 전체에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친밀성은 장소애정성으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동기와 대학생 시기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소친밀성을 구분하지 말고 장소애정성의 한 개념으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소친밀성의 또 다른 측면이 대학생기의 장소휴식성으로 제시되었으나 각 시기별 장소애착의 설명력이 낮고 중요도도 낮아 이 요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소애착 이론은 장소의존성,

<표 6> 정준상관분석의 정준중복지수

설명되는 대학생기 장소애착 변수들 (종속변수)의 평균분산 (Proportion of Variance of set-1 Explained by Opposite Can. Var.)		설명되는 아동기 장소애착 변수들 (독립변수)의 평균분산 (Proportion of Variance of set-2 Explained by Opposite Can. Var.)	
아동기 장소애착 (독립변수들)의 정준변량	설명비율	대학생기 장소애착 (종속변수들)의 정준변량	설명비율
CV2-1	.439	CV1-1	.249
CV2-2	.075	CV1-2	.079
CV2-3	.016	CV1-3	.021
CV2-4	.004	CV1-4	.011
CV2-5	.001	CV1-5	.001

장소에정성,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의 개념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동기의 경우는 장소놀이성의 개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아동기 장소애착과 대학생기 장소애착은 서로 관련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고, 발달단계 상에서 볼 때 아동기 물리적 환경의 집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기 집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 공간 환경이 성인의 공간 환경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Chalwa(1992)와 Marcus(1992)의 연구에서도 경험적인 현상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실증적인 수치로 제시된 바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력이 약 44%임을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이에 아동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유대감은 성인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유대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임을 확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장소애착 개념이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아동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인 장소애착은 발달과정에 내재되어 대학생인 성인 초기의 장소애착 형성 및 설명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적 차원의 장소애착 이론을 확대 발전하는데 기여하며, 실용적 입장에서는 집의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디자인할 때 아동기의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대학생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이므로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소애착의 개념이론 정립 연구 및 발달단계에 따른 영향력을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초기의 대학생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의 집을 통해 독립적 생활을 하는 성인기를 대상으로 아동기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달단계의 전 과정별로 장소애착을 파악하여 발달단계별로 장소애착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장소애착이론을 확대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기 장소애착의 개념에서는 놀이성이 포함되어 독특한 개념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장소의존성의 개념을 근거로 제시된바 이므로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을 발달단계별로 고려하여 아동기와 대학생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일반화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장소애착, 주거환경, 아동기 집, 대학생기 집, 대학생

참 고 문 헌

- 김원필. (2002). 아동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이 현 주거공간의 개인영역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8), 3-10.
- 문은미. (2000). 유년기 회상기록분석을 통한 아동의 놀이장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5), 27-32.
- 박희경, 정계숙. (2010). 유아-부모 애착과 일치 여부가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229-242.
- 송지영, 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51-66.
-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오택섭. (1998). **사회과학데이터분석법**. 서울: 나남출판.
- 이경희, 윤정숙, 홍형욱. (1993). 주거와 인간. **주거학개설** (p.6-7). 서울: 문운당.
- 이영준. (2002). **정준상관분석의 이해** (p.3-10). 서울: 석정.
- 이은숙. (2006). 장소애착의 본질: 시 「다시 엘르에게」를 통해서. **문화역사지리**, 18(1), 1-10.
- 이진숙, 최병숙, 한지현, 한영숙. (2009).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0(6), 549-566.
- 최목화, 최병숙. (2003). 아동이 기억하는 주거환의 이미지 요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9), 31-40.
- 최 열,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0(2), 53-64.
- Bonaiuto, M., Aiello, A., Perugini, M., Bonnes, M., & Ercolani, A. P. (1999).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quality and neighbourhood attachment in the urban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 Psychology*, 19, 331-352.
- Chawla, L. (1992). Childhood Place Attachments.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ress. 63-86.
- Choi, B., Lee, J., & Han, Y. (2009). measurement Factors of Place Attachment on Childhood Home. Interactive Session of EDRA40 Conferenc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 Chow, K., & Healey, M. (2008).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First-year undergraduates making the transition from home to univers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362-372
- Dallago, L., Perkins, D.D., Santinello, M., Boyce, W., Molcho, M., & Morgan, A.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 148-160.
- Derr, V. (2002). Children's sense of place in northern New Mexico.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 125-137.
- Despre, C. (1991). The meaning of home: Literature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Architectural Planning Research*, 8, 96-115.
- Harris, P. B., Brown, B. B., & Werner, C. M. (1996). Privacy regulation and place attachment: Predicting attachment to a student family housing fac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87-301.
- Hess, K. A. (1997). Attachment to childhood pla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A.
- Jorgensen, B. S., & Stedman, R. C. (2006).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dictors of sense of place dimensions: Attachment to, dependence on, and identification with lakeshore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79, 316-327.
- Kelly, G., & Hosking, K. (2008). Nonpermanent residents, place attachment, and "Sea Change" commun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40(4), 575-594.
- Kyle, G., Grae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andBehavior*, 37(2), 153-177.
-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 Linking place preference with place meaning: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439-454.
- Leith, K. H., (2006). "Home is where the heart is... or is it?"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home for older women in congregate housing. *Journal of Aging Studies*. 20. 317-333.
-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attachment*(pp.1-12). New York : Plenum Press.
- Marcus, C. C. (1992). Environmental Memories.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ress. 87-112.
- Molcar, C. C. (2006). The relationship of place attachment to spiritual well-being across the lifes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Graduate Psychology, Seattle Pacific University. Seattle, WA.
- Nygren, C., Oswald, F., Iwarsson, S., Fänge, A., Sixsmith, J., Schilling, O., Sixsmith, A., Széman, Z., Tomson, S., & Wahl, H. W., (2007).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and Perceived Housing in Very Old Age. *The Gerontologist*, 47(1), 85-95.
- Pretty, G. H., Chipuer, H. M., & Bramston, P.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73-287.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 Rubinstein, K. L., & Parmelee, P. A. (1992). Attachment to Place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Life Course by the Elderly.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ress. 139-163.
- Stedman, R. C. (2006). Understanding place attachment among second home owner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2), 187-205.
- Stedman, R.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 Taylor, S. P. (2001). Place identification and positive realities of aging.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 5-20.
- Tognoli, J. (2003). Leaving home: Homesickness, place attachment, and transition among residenc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 35-48.
- Vorkinn, M., & Riese, H. (2001). Environmental concern in a local context: The significance of place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3(2), 249-263.
- William, D. R., & Roggenbuc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ABSTRACTS of Proceedings of the 1989 NRPA Leisure Research Symposium. p32.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접수일 : 2010. 09. 01.
 | 수정완료일 : 2010. 09. 29.
 | 게재확정일 : 2010. 10. 05.